



파주 임진각 '마장호수 출렁다리'



철원 '노동당사'



양구 '두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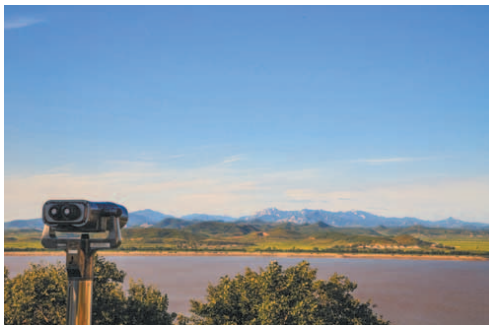
강화평화전망대 '북녘의 가을' 보러 가자!

고성 통일전망대선 금강산이 한눈에 두타연·임진각·철원 노동당사도 강추

오랫동안 막혔던 이산가족 만남이 이루어지고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도 남북 단일팀이 뛰었다. 여전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국제정세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남북 간의 긴장이 과거보다 누그러졌다. 그동안 남북을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는 안보와 분단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변화에 맞춰 평화와 관광이란 테마로 새삼 주목받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현재의 변화가 앞으로 평화로 정착되기를 바라며 9월 가을여행의 테마로 '한반도 평화관광지' 다섯 곳을 선정했다.

●평화와 역사의 여정, 강화평화전망대(인천 강화군 양사면 전망대로)

강화도 최북단 강화평화전망대는 우리나라에서 북측 지역을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맑은 날에는 송악산과 개풍군 지역이 망원경 없이도 손에 잡힐 듯이 선명하다. 교동도는 한국전쟁 때 내려온 황해도 주민이 고향으로 돌아갈



강화 평화전망대



고성 통일전망대

날을 기다리며 터를 잡고 살아온 지역이다. 황해도 연백시장을 재현한 대룡시장 등 곳곳에 실랑민의 아픔이 배어있다. 또한 강화도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부근리 지석묘를 비롯해 강화성당, 용흥궁 등 역사적인 명소도 많다.

●분단의 상징이 셸피 명당으로, 임진각평화누리(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임진각 국민관광지에 2005년 만들어진 임진각평화누리는 9만9000여㎡의 넓은 잔디 언덕이 이국적인 분위기를 이루어 SNS 인증사진을 찍으려는 젊은 방문객들이 많다. '통일 부르기', '바람의 언덕', 'Pin project_No 1' 등은 이미 '셀피 명당'으로 입소문이 났다. 경의선 평화열차 DMZ 트

레인을 이용하면 기차여행까지 결합 가능하다. 인근에 가을 국화군락이 멋들어진 벽초지 문화수목원과 걷는 재미가 남다른 마장호수 흔들다리가 있다.

●철도여행부터 문화행사까지, 철원 노동당사(강원 철원군 철원읍 금강산로)

철원 노동당사는 현재 외벽만 남았지만 아픈 현대사를 상징하는 의미를 인정받아 2002년 5월 등록문화재 22호로 지정됐다. 이곳에서는 현재 통일기원예술제나 음악회 등 다양한 평화 기원 행사가 열린다. 소이산 생태숲녹색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철원평야, 임객정의 전설이 있는 고석정, 제2땅굴과 철원평화전망대, 월정리역을 두루 살피는 DMZ 견학이 이곳 여행의 포인트다.

●산양과 열목어를 만나는 생태관광지, 양구 두타연(강원 양구군 방산면 고방산리)

양구 두타연은 한국전쟁 이후 민간인 출입을 금지했다가, 2004년 일반에 개방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 열목어,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산양이 있는 대표적인 생태관광지다. 편치불마을, 읍지전망대, 국립DMZ자생식물원, 산양증식복원센터 그리고 한국 근대 회화의 거장 박수근의 주요 작품을 볼 수 있는 박수근미술관까지 여행의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금강산을 지척에서 보는 곳, 고성 통일전망대(강원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통일전망대는 1984년 휴전선의 동쪽 끝이자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쪽 10km 지점에 설치했다. 이곳서는 금강산과 해금강이 한눈에 들어온다. 현재 공사 중인 해돋이 통일전망타워가 준공되면 금강산을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다. 화진포 해수욕장에서 가을 바다를 보고, 건봉사에서는 임진왜란 때 승병을 훈련한 사명대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소설 '국화꽃 향기'의 저자가 운영하는 김하인 아트홀도 근처에 있다.

oldfield@donga.com



롯데월드 어드벤처가 가을을 맞아 시즌 축제 '호러 할로윈 THE Virus'를 선보였다. 야외 매직 아일랜드에서 펼쳐지는 '호러 할로윈'의 '통제구역 M'.

사진제공 | 롯데월드

꼬마 유령 vs 좀비...롯데월드 '할로윈 축제'

11월4일까지 '호러 할로윈 THE Virus'

서울 잠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9월1일 '호러 할로윈 THE Virus'란 이름으로 가을 시즌 축제를 개막했다. 11월4일까지 진행되는 축제는 크게 낮과 밤으로 나누어 전혀 다른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 낮에는 다양한 꼬마 유령들과 신나게 즐기는 가족 방

문객 중심의 '큐티 할로윈'을 실내파크 중심으로 진행하고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실감나는 모습의 좀비들이 등장하는 '호러 할로윈'이 야외 매직 아일랜드에서 열린다.

'큐티 할로윈'에서는 호박, 유령 등의 캐릭터들이 나서는 메인 퍼레이드 '로티스 할로윈 파티 퍼레이드'를 비롯해 뮤지컬 '드라큘라의 사랑', 신구 미디어 슈팅게임 '할로

윈 유령 대소동' 등이 주요 즐길거리다.

가을 밤 매직 아일랜드에서 진행되는 '호러 할로윈'에서는 더 화려해진 '통제구역 M', 거대좀비들이 등장하는 '자이언트 좀비 MOB', 좀비 출몰 동굴 '좀비 케이브' 등을 진행한다. 지난해 예매율 100%의 큰 인기를 끈 '빅 대디의 좀비 팩토리'는 폐교 콘셉트의 '스쿨 오브 더 데드'로 업그레이드했고, '감염의 시작', '좀비 나이트메어', 자이로드로에 좀비VR 콘텐츠를 입힌 '좀비드롭'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김재범 기자



태안 청산수목원 '팜파스 역사 축제'

태안 청산수목원은 무르익은 가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팜파스 역사 축제'를 11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서양 역사'로 불리는 팜파스 그라스는 키가 크고 꽃이 탐스러운 코르타에리아속의 벼과 식물이다. 뉴질랜드, 뉴기니, 남미 등에 주로 분포하며 남미의 초원 지대를 뜻하는 '팜파스'와 풀을 뜻하는 '그라스'를 합친 명칭이다. '팜파스 역사 축제'가 열리는 청산 수목원은 꽃지 해변, 천리포 수목원과 함께 태안군의 사진촬영 명소로 꼽힌다.

워커힐 '상하이 호텔앤리조트' 데이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이하 워커힐)는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상하이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데이'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워커힐과 중국 부동산 투자 기업인 지산그룹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획했다. 워커힐과 지산그룹은 2016년 포괄적 MOU를 체결하고 크로스 트레이닝, 세일즈·마케팅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인터컨티넨탈 상하이 엑스포호텔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는 휴식, 문화, 비즈니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까지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워커힐의 장점과 특화된 비즈니스를 소개한다. 중국 여행 및 호텔업계 관계자와 미디어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전기세가 확실하게 절감되는

센추리 초강력 인버터 냉·난방기

사업자등록증 OK
36개월 분납가능

45년 전통의 업소용 전문업체

(상가, 사무실, 공장, 식당, 교회 등)

2018년 빅히트! 업소용 이동식 에어컨

센추리를 구매해야 하는 크나큰 이유!

1. 전기세가 얼마나 절약되는지??
2. 냉방·난방 평수가 똑같은지??
3. 45년 동안 고집스럽게 냉난방기를 만든 회사인지??
4. 초기비용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36개월 분할납부가 되는지??
5. 빠른 설치와 A/S가 되는지??

센추리 공식 판매처 (주) 센추리에어컨

제품구입 무료전화 **080-965-7777**